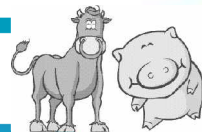


# 소· 돼지 가격전망



## 소

### 가격상승폭 크지않아



주식빙절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검역재개 되었다. 지난 8월 1일 수입조건 위반으로 검역이 중단된 이후 잠시나마 상승세를 탔던 소값이 검역재개 결정이후 주춤해졌다. 검역이 재개된 이후에도 수입조건 위반 건수가 하루길너 한번씩 발생되고 있지만 수입중단이나 검역중단 없이 해당 작업장의 승인취소만 이루어진채 여전히 농관업무는 이루어지고 있다. 명절 성수기를 앞둔 시기에 쇠고기 수입량의 증가와 도축두수의 증가로 기대만큼의 가격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과 수입위생조건협의회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 협상 결과에 따라 갈비를 포함한 부분까지 수입이 이루어진다면 가격하락의 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검역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수입위생조건 위반으로 인해 소비자의 미국산 쇠고기 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어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다시 이루어진다고 해도 주춤까지는 일단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이라면 추석 선물세트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한우고기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때일수록 농가에서는 홍수준하를 자제하고 계획된 준하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의 공세가 일단 주춤해진영향으로 올 추석 성수기에는 국내산 소 거래가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출하대기물량이 만만치않아 큰 폭의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돼지

### 성돈 18~19만원

주식빙절을 앞두고 시장상황이 어렵게 흘러가고 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모돈수는 증가 했으나 소모성질병에 따른 폐사두수가 여전히 많아 출하두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시중에 넘치나고 있는 지가의 수입육으로 인해 회복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난 이듬성수기는 미국산 쇠고기 이세가 하늘을 찌를 듯 하더니 수입위생조건 위반으로 한풀 켜인 뒤에는 하염없이 내리는 비로 인해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식빙절을 맞아 반짝 그 기세가 살아날 것으로 보이나 일시적인 것이라 농가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식이후 비수기에 접어드는 국내 시장 이견을 보면 수입육을 비롯한 국내 재고 과다는 분명 큰 위험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한달여 만에 실시된 미국산 쇠고기 검역재개에도 불구하고 위생조건 위반이 계속되고 있지만 미국과 밀이코 있는 위생조건협의회에서 재협약이 이루어진다면 갈비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결정 시기가 분체지 들어온다고 본다면 지금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주식이후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악재들이 뻗어 보이고 있는 지금 농가에서는 홍수준하를 자제하고 계획된 사양관리 통해 안정적인 출하와 농장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간 미트뉴스 제공>

